



EU 긴급안 국민투표 부결

반대 61%·찬성 39%

치프라스 “48시간 내 재협상”

유로존, 오늘 긴급정상회의

그리스 국민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채권단의 긴급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그리스가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박빙을 보일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최종 개표결과 반대가 61.3%로 찬성(38.7%)을 22.6%포인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3%로 1%포인트 안팎의 차이만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큰 반대'(Big No)를 보였다. 유권자 985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반대가 클수록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 채권단으로부터 더 좋은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다'는 설득 등이 막판 반대여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 질문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25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수용하느냐”다.

반대로 결정됨에 따라 그리스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대로 '더 좋은 협약'이 체결될 것인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ECB가 유동성 지원을 중단해 그리스 은행들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지 등 180도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반대가 다수로 나오면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된 더 좋은 협약을 48시간 안에 체결하고 은행 영업을 7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가 확정되자 채권단에 즉시 협상을 재개하자며 이번 협상에선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분석된 대로 채무 탕감(헤어컷)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달 26일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헤어컷도 필요하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EU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가 표출

된 존중한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예룬 데이셀블롬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과 전화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양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요청에 따라 7일 유로존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확정함에 따라 치프라스 총리가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이셀블롬 의장은 성명을 통해 7일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투표) 결과는 그리스 미래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리스 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조치들과 개혁들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그리스 정부의 제안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채권단 제안 중 연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겠다고 하며 2년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차 구제금융'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는 7일부터 은행 영업재개를 위해 ECB에 긴급유동성지원(ELA) 증액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혀 6일 예정된 ECB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ECB는 유로존 지도자들이 그리스 정부와 협상에 응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등을 결정하기 전까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리스에 이미 자본통제 조치로 수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ELA 증액 결정이 장기화한다면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어 채권단이 1~2일 안에 사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 개표결과 채권단의 제안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소식에 '반대'에 표를 던진 그리스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리스, 당분간 유로존 잔류”

국제금융센터 “디폴트 상태로 몇달간 채권단과 협상”

국민투표 후 채권단과의 재협상을 앞둔 그리스가 향후 수개월간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및 전망’ 보고서에서 당장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그리스는 디폴트 상태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수일, 수주일 이 아니고 향후 몇 달간은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과 그리스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그리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내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과 함께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수출입이 급감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디폴트 장기화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에도 악재다.

그리스에 대한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작지만 독일은 차관 등 공적대출 916억 유로, 프랑스 701억 유로, 이탈리아 612억 유로, 스페인 421억 유로 등 각국이 총 3325억 유로를 그리스에 투입했다.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장기간 상환되지 않으면 결국 유로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과 채권단 양측 모두 그렉시트를 원하지는 않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렉시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김 팀장은 “수십 년째 통합의 길만 걸어온 유로존이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분리 진통을 겪으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렉시트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힐러리는 ‘아침형 인간’

美언론 “오전 5시부터 메일 전송…보내는 게 더 많아”

“힐러리 클린턴은 아침 5시부터 이메일을 최측근에게 보내는 ‘아침형 인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5가지 습관이 발견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그는 아침형 인간 = 그는 주로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메일을 주고받았다. 주말에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받는 메일보다 보낸 메일이 더 많아 = 그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메일을 보낸다. 그가 보낸 메일 건수는 받은 메일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일반인들은 통상 그들이 보낸 것보다 두 배 많은 메일을 수신한다.

▲ 메일 대부분은 핵심 보좌관들과 주고받은 것 = 그의 메일 대부분은 세릴 밀스 비서실장, 제이크 설리번 참모, 후마 에버딘 보좌관과 같은 최측근들 사이를 오간 것이다. 이들 3명과 주고받은 메일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 그의 ‘문지기’는 밀스 비서실장 = 밀스 비서실장은 종종 클린턴 전 장관에게 어떠한 메일과 기록을 전달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 측근 시드니 블루멘탈과 각별한 이메일 관계 = 그는 오랫동안 친한 친구사이었던 블루멘탈과 35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블루멘탈은 국무부 직원이 아니면서 클린턴 전 장관과 계속 메일을 나누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돈 · 빌려 주실 분!

- ▶ 3억원 이상
- ▶ 연 12% 확정 이자
- ▶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연 3억 순수의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

